

개인투자자, 상승랠리 美 시장으로... 국내 시장은 '관망세'

신용공여잔액, 계엄사태 여파로 15.3조로 내려앉아... 투자심리 위축 투자자에탁금, 연초비 11.04% 줄어 테슬라 주가, 올해에만 약 70.94%↑ 삼성전자, 28.78%↓... 목표주기도 하향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꼬리를 물고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국내 증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 직후에는 투자자에탁금과 더불어 '빚투(빚내서 투자)'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반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잔액은 15조310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15조8785억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연초 17조 원대로 시작해 상반기 20조 원대를 기록

하기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다. 이달 들어서는 계엄사태의 여파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16조 원대로 무너졌다.

하반기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증

시를 끌어내리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4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동안 개미들은 약 2조3193억원을 순매도했다.

투자자에탁금도 지난 11일 기준 52조 9228억원으로 연초 59조4949억원에서 약 11.04% 감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계엄령 선포 직후의 흐름이다. 3일 투자자예탁금은 49조8987억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다음날인 4일 51조 4552억원대로 다시 올라왔다. 투자자에탁금은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 11일 기준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577억달러로 연초 1012억달러와 비교해 약 55.83%(약 565억달러)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 부담이 크고, 수익률 저하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요 증시들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담보되는 시장으로 인식된다. 개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서חק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보유 종목 1위는 테슬라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만 약 70.94%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חק개미들의 최선호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약 28.78% 하락했다. 증권가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예상했지만, 최근 들어서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5만5900원으로 '5만전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이 엇갈린 성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날 BNK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7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시장예상치를 각각 5%, -17%씩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전 분기에 이어 상여금 총당이 추가 반영되고, 연말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했을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주문자 생산방식(OEM)들의 재고조정은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밸류업 지속 가능성... 금융주 반등세 '충분' 키움운용, 오는 17일 美양자컴퓨팅 ETF 상장

KRX은행지수, 계엄 이후 약 9%↓ 정치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정책적·수익성 면에서 영향 제한적

연말 배당 수혜주로 손꼽히는 금융주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급락하자, 반등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밸류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지만,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작아 금융주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약 9%가량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0.72%)와 코스닥 지수(-1.07%)의 하락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KB금융이 14%가량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신한금융지주는 10%, 하나금융지주는 9%, 우리금융지주는 8%의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초 은행주는 밸류업 정책 발표

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양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친화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은행들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을 키우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일부터 11일까지 KB금융 4350억원, 신한금융지주 1663억원, 하나금융지주 88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산업인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초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은행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 커진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보통주자본(CET1) 비율과 은행 손익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과 더불어 밸류업 정책이 유지되고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금융주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권 안정과 수습까지 3~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사태는 은행주에 정책적으로나 수익성 면에서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나 이익적으로 영향이 크게 없다면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될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율과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고려한다면 금리는 2% 중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원화 약세는 추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아이온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겨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양자컴퓨팅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SEF 미국양자컴퓨팅'을 오는 17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ETF 시장에 양자컴퓨팅 산업을 겨냥한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북미에 분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양자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20개에 투자한다. 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아이온큐(24.7%)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마벨테크놀로지(8.2%), 허니웰 인터내셔널(7.0%), 엔비디아(6.7%), IBM(6.7%) 등의 비중도 높다. 아마존, 팔

로알토, 알파벳, 오라클, 인텔 등도 편입한다. 기초지수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솔랙티브가 산출하는 'Solactive U.S. Quantum Computing Index'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초고속 연산을 할 수 있어 '꿈의 컴퓨터' 또는 '궁극의 컴퓨터'로 불린다. 구글은 2019년 자사 양자컴퓨터 시카모어가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산업은 이제 성장 초입에 들어선 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막대하다고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컴퓨팅 시장은 2023년 18조 8352억원에서 연평균 30.9%씩 성장해 2030년 123조82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투자 ETF 2종 순자산 10兆 돌파

美S&P500, 나스닥100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2종 순자산 총합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6조 2115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 중 1위 규모이자, 아시아 ETF 시장에 상장된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산은 4조 2980억원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S&P500,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의 총 순자산 규모가 총 10조원을 넘어

선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아울러 국내 주식형 ETF 시장에서 미국 투자 상품이 국내 투자 상품을 제치고 순자산 1위에 오른 것은 'TIGER 미국S&P500 ETF'가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지난 11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는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약 1조72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주식형 ETF 순자산 1위에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프로파일북, 美 LACP서 '금상'

(커뮤니케이션연맹)

9년 연속 수상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2024년 삼성자산운용 프로파일북'이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2024 LACP Spotlight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의 프로파일북은 회사의 투자 철학, 전략, 성과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자료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상'을 4년 연속 수상했고, 2021년에는 최고의 영예인 '플래티넘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으로, LACP가 매년 발표하는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기업, 기관들이 발간한 회사 소개서, 연차 보고서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평가하는 시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12개국 1500여개의 보고서가 출품돼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 발행된 보고서는 첫인상, 전달력, 디자인, 창의성, 명확성, 연관성 등 6개 항목을 심사한다. 삼성자산운용은 6개 부문 중 4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총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삼성자산운용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혁신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